

‘文사퇴 압박’ 속 계파갈등 점입가경… 새정치 앞날 캄캄

정청태 최고위원의 막말로 확산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내분 사태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친노무현) 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오히려 문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유능한 경제정당’, 공천혁신,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내 비노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내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내분 사태 진화와 관련, “문 대표

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장,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여수에 집거 중인 주승용 의원은 ‘복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막말의 당사자인 정청태 최고위원은 이날 여수를 찾았지만 주 최고위원을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사과와 복귀는 별개”라며 최고위원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문 대표가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지도부가 의무 못지않게 책임을 다하

김한길 “문은 시간끌지 말고 결단내려야” 직격탄

문재인 “친노 없어질때까지 노력” 정면돌파 의지

는 것도 중요하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다하라는 건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최고위원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무 불이행’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이날 여수를 찾고 일부 친노 인사들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표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 살리기’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노 진영을 대표하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날 문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는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문 대표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비노 진영의 조경태 의원은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셀프 재신임을 얻었다”며 사퇴를 요구했으며 박주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도부가 총사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친노의 절반 이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운동권적 계파 패권주의”라고 비판

했다. 이처럼 비노 진영에서 문 대표 사퇴 압박을 계속하면서 당내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계획했던 의원 워크숍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욱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대한 호남 민심의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에 실망 준 새정치 지도부 각성하라”

전남도의회 새정치 소속 의원들 긴급 의총

‘정청태 발언·주승용 사퇴’ 관련 무능 질타

전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1일 ‘정청태 공갈발언과 주승용 사퇴 파동’과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전남도의회 초의실에 모인 32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행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 기념식과 선원중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음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지도부가 없

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과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패배한 뒤 대표가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태 최고위원이 지도부의 자성을 요구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치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어 주 최고위원이 회의를 박차고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와중에 유승희 최고위원은 마이크를 잡고 뜬금없이 ‘불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

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패배의 원인을 특정 계파주의와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소통 부재, 그리고 공천 전략의 부재와 야권 분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통찰한 자기반성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내 분열과 갈등으로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당 쇄신 방안으로 “4·29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의 자기반성과 비전 제시, 특정 계파주의 청산 및 당과 정국운영 방식의 전면개혁,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포기”와 국민의 신뢰회복과 당 통합을 위한 구체적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집거 중인 강진 토담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일 토담집을 찾은 방문객들이 손 전 고문과 문안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다. <박동인씨 제공>

與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靑 “세금폭탄”

野 “국민연금 합의 차라리 파기하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11일 ‘대통령의 정쟁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 불가 입장을 정한 데 대해서도 “차라리 파기선언을 하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입장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

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 행위를 이제 멈춰 달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연금 관련 수치를 뒤죽박죽 만들어 ‘세금폭탄’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관계가 원만하기를 당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예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강공으로 ‘맞붙’을 놓았지만 고문은 여전히 있다.

마냥 강경론을 앞세울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와 같은 파국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아예 무산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합의를 반복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여당에 무릎을 꿇었다는 당내 강경파와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사래 치는데… 손학규 강진 토담집 문전성시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하면서 지도부 사퇴 요구로 심각한 내용을 알고 있는 가운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집거 중인 강진 토담집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서를 하며 자서전 집필을 준비 중인 손 전 고문 측은 만류에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인과 방문객이 너무 많아 손 전 고문은 요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주 이 토담집에 들르는 한 측근에 따르면 최근 어버이날 등에 방문객 100여 명이 찾아 조용한 산중 토담집에 대화 소리가 넘쳤다.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방

지인 등 하루 100여명 문안인사

4·29 재보선 이후 방문객 급증

문객이 이어지고 있으며 토담집 아래 백련사도 방문객의 발길이 분주하다.

이 측근은 “지인 등이 문안 인사를 하고자 주말을 맞아 토담집을 방문했으며 싸운 음식물을 마당에 펼쳐 놓고 손 전 고문과 함께 먹자고 권유하는 등 시종일관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러나 정치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새정치연합 내분으로 집거 중인 손 전 고문의 ‘کم백’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손 고문은 여전히 현실정치는 완전히 떠났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30 수원 팔달 보궐선거 패배 직후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난 손 전 고문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으나 손 전 고문은 정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손 전 고문이 당분간 이 토담집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측근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고교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인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